

《공부의 발견》 선정기

#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다

세상의 모든 책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 산고의 고통에 견줄만하다는 기획과 창작의 과정이 끝나면 수많은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은 술한 불면의 밤을 보내며 하나의 책을 세상으로 소통시킨다. 한 권의 책이 독자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발이 부르토도록 현장을 누벼야 하는 영업인들의 고충은 또 어떤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은 나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읽혀져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때문에 <출판저널>의 이 달의 책 후보를 선정하는 기자들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 기한과 마감이 존재하다보니 하루 이틀 늦게 당도한 책들, 서점 등으로 발품을 팔아 발견한 눈부신 책들은 과장을 조금 보태면 ‘눈물을 머금게’ 한다.

3월에도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12권의 책을 후보도서로 올렸다. 민족문학연구소가 엮은 《소설 팔십년대, 구십년대, 이천년대》와 방민호, 박현수, 허혜정 등 세 사람이 기획 편집 해설을 붙인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 한국적 철학함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김상봉의 《서로주체성의 이념》,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한국형 개발전략》,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조용현의 《보이는 세계는 진짜일까?》, 정순우의 《공부의 발견》, 노광준의 《뉴스는 반만 믿어라》, 김승웅의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지강유철의 《장기려, 그 사람》, 이경분의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박완서와 이해인, 방혜자와 이인호의 대담집 《대화》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번 달에는 유독 한 작가 혹은 저자의 저작보다는 《소설 팔십년대, 구십년대, 이천년대》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

《한국형 개발전략》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대화》 등 공동의 저작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네 분의 선정위원들은 12권의 책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따라 이 달의 책을 선정해 주었다. 쉽게 말하자면, 네 분의 선정위원들이 모두 다른 책을 첫 손가락을 꼽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세 분으로부터 2등 둘, 3등 하나의 낙점을 무른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를 제치고 세 분으로부터 1, 2, 3등의 낙점을 하나씩 무른 《공부의 발견》이, 다른 어느 달보다 치열했던 4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전봉관 교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입시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한창 학문을 탐구할 대학 시절 대부분을 취업준비로 보내고, 직장을 잡고 나서도 끊임 없이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정순우의 《공부의 발견》을 이 달의 책으로 추천했다. 전 교수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에게 공부는 일상화되었지만, 무엇이 공부이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이 책은 평생 책상 앞에서 공부와 씨름하면서도 잊고 지낸 근본적인 문제, 공부가 무엇인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선 시대 현인들의 공부론을 통해 해명을 시도한다.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라고 평했다.

고미숙 박사는 《공부의 발견》을 “고전에서 찾는 ‘미래를 찾는 책’”이라면서 “‘공부란 무엇인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를 묻고, 그것을 통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근대교육의 병폐를 넘어서고자 한다”고 평했다. 최재봉 기자는 “‘공부’가 타락한 시대. 공부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



이 달의 책, 이 달의 저자 선정위원

고미숙 고전평론가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전봉관 KAIST 인문학부 교수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직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비뚤어진 세태. 이런 때일수록 선인들의 공부법으로 눈을 돌려 보자고 지은이는 권한다"면서 성찰과 진리 탐구를 현실의 문제와 결부해서 고민한 점을 높이 샀다. "공부를 출세 및 이해득실로 연결짓는 것을 저어했던 선학들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교육이 지닌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각각 다른 책을 첫 손가락에 꼽아 주신 분들의 평은 이렇다. 장석주 시인은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를 추천하면서 "글 전반에 녹아있는 회고라는 형식의 글이 갖는 나르시시즘의 나른함 속에서도 '기자정신'이 뭇가를 소름 끼치게 보여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기자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공감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표현했다. "기자란 역사의 전위에 제 몸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자다. 역사가들이 낙중한 역사 이면에 있던 사람과 그 뒷얘기들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를테면 유신의 무거운 공기가 서울 상공을 짓누르던 그 시절 30대의 한 기자가 새벽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 충혈된 눈으로 기울이던 소주잔에 얼핏 비치는 오랜 독재의 그늘이 만든 피로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최재봉 기자는 김상봉 교수의 《서로주체성의 이념》을 선두에 세웠다. 단문으로 읽기는 것보다 최 기자의 전문으로 읽는 것이 이해를 돕는 길이라 여겨 옮겨본다.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주체란 곧 '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역시 서구의 개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터. 주체를 보는 이런 시각에는 집단과 지배자(=국왕 ; 주체subject의 원 뜻이 '신하'임을 상기하자)에 대한 복속에서 벗어나는 계몽과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극한이 이기

주의 내지는 자기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대 이후의 서구 철학에서는 '상호주체성' (inter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이 개발되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가 말하는 '서로주체성'은 서구의 상호주체성과 맥이 통하면서도 그 안에 역사라는 통시적 차원과 관계 및 맥락을 놓치지 않는 종합적 사고, 여기에다 한국 사상사에 대한 주체적 참조를 더해 독자적이면서 창조적인 주체성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놓는다."

고미숙 박사는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좌절》을 "진보와 개혁이 특정 정치인들과 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장에 있는 것임을 보여준 생생한 보고서, 우리 시대 신문과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찬철살인으로 평해 주었다.

한편 만만치 않은 내공으로 이 달의 책을 노렸던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에 대한 호평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전봉관 교수는 근대문학이 시작된 지 10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은 여전히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양의 시론으로는 결코 맞볼 수 없는 우리 시의 참맛을 우리 시론으로 해명하려한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책"이라고 말했다.

장석주 시인은 "내공이 깊은 시인의 시작법도 경청할 만하거니와 다채로운 시인들의 시 읽기도 흥겹다"면서 "시가 대중에게서 외면당하는 시대에 함부로 시의 본도(本道)를 궁구하려는 자세를 요구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를 아는 것이 우주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를 칭찬했다. **문예**

정리 장동석 기자